

아래 글은 김진태 목사가 한글로 번역한 All For Jesus 의 일부로서 심슨 목사의 성결의 체험과 이로 말미암은 성령의 역사에 대한 기록이다 (번역본 19-25 면)

새로운 비밀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심슨의 목회의 성공의 비결은 무엇인가?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기 원하시고 이로 인해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기를 원하신다. 심슨도 어쩔 수 없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 성결과 성령세례의 체험을 한 것이다.]

당시 심슨의 상황은 안팎으로 문제 투성이였다. 아직도 해결되지 못한 내면적 갈등과 당장 남북전쟁의 후유증, 두 가지 문제 사이에서 심슨은 가장 절망적인 상황에 자신이 처한 것을 발견했다. 안팎으로 밀려드는 이 두 가지 어쩔 수 없는 갈등을 놓고 심슨은 모든 해결의 근원이신 하나님, 온 맘을 다하여 찾으면 찾으리라고 약속하신 하나님에게로 나아갔다. 하나님을 갈망하는 심슨에게 다가온 한 권의 책이 있었다. 바로 윌리엄 보드만이 1858 년에 쓴 “성결의 삶”이었다. 1874 년 어느 날 서재에서 이 낡은 책을 발견한 심슨은 이 책을 읽기 시작했다. 이로 인해 심슨은 예수님을 “살아 역사하시고 모든 것에 충분하신 존재”로 발견했다. 후일 심슨은 증언했다. “우리를 의롭다하신 주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실 뿐 아니라, 우리 영에 들어오셔서 주님의 능력과 거룩하심과 기쁨과 사랑과 믿음과 능력으로 우리의 형편없는 모습을 대신하게 하셔서, 우리가 삶 속에서 이 모든 축복을 체험할 수 있도록 도우시려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셨다.” 심슨은 영광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발아래 엎드려 주님의 약속을 자기 것으로 주장했다.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고후 6:16). 바로 이 순간 인격체이신 예수님께서서 밧모 섬에서 사도 요한에게 친히 임하셨던 만큼이나 생생하게 친히 심슨의 영에 임하셨다. 바로 이 순간부터 이 새로운 체험은 심슨의 삶에 능력으로 역사하기 시작했다. “내게 능력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빌 4:13). 그 후 40 여년의 사역을 통해 심슨은 자신의 사역의 비결을 모두 예수님만이 우리를 성결케 하시는 성결의 주로 인정하고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은 그 순간으로 돌렸다. 이 사건은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난 순간과 마찬가지로 심슨의 사역에 있어서 결정적인 전환점이었다.

후일 심슨은 이렇게 말했다. “그렇다고 모든 믿는 자가 다 성령을 인격적으로 환영하고 자신의 심령 속에 다스리는 이로 영접한다는 것도 아니며 제가 이 체험을

하기 전에는 믿는 자가 아니었다는 말도 아닙니다. 저도 설교자로 복음을 전한지 10년이 지난 후에야, 성령의 내주하심을 인격적인 하나님의 임재로서, 제 지성과 감성과 의지와 육신과 생각과 사역에서 살아 역사하도록 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았습니다. 확실히 말하건데 성령님이 내 심령의 집에 주인으로 임하신 것은 내가 그 분께 심령의 집을 자발적으로 내어 드리고 나는 더 이상 주인이 아니고 잠시 대여하고 있는 존재일 따름이며 성령님이 친히 주인으로서 나를 관리하시고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인정한 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렇다고 이 성결의 체험이 심슨으로 하여금 영적 발전에 대한 추구를 중단시키지는 않았다. 심슨에게 있어 성결의 체험은 이제 시작일 뿐이었다. 심슨은 이에 대해 계속 설명했다. “성결이란 하나님의 거룩하심이지, 인간이 스스로 개선하거나 완성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성결이란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명과 완전하신 성품을 믿는 자에게 불어넣어 주셔서, 이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이다.” 심슨은 이러한 이유로 인해 “성결은 하나님의 임재가 들어오는 순간 완성이며 완전일 뿐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 계속 완성되어야 하고 완전해져야 하는 과정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므로 심슨에게는 성결이란 순간적인 성취가 아니고 끊임없이 성장하는 심령의 태도였다. “그리스도는 우리 믿음의 주시오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시다. 그러므로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분별된 심령이 취할 태도는 항상 주님께 내어드리는 포기의 역사와 모든 것을 주님으로부터 받아들이는 태도라야 한다. 우리의 영적 성장에는 끊임없는 전진만 있을 뿐이다. 바로 여기에 단계적 성화가 있는 것이다.”

심슨의 성화에 대한 태도를 여실히 드러낸 사건이 있다. 성령께 자신을 온전히 내어드리는 성결을 체험한 직후에 심슨은 부흥사 무디가 주최한 목사들을 대상으로 한 집회에 참석하려 시카고를 방문한 적이 있었다. 심슨이 집회에 참석하였더니 아직 무디가 말씀을 전할 본 예배는 시작되지 않은 채 예비집회가 진행되고 있었다. 마침 한 설교자가 온통 얼굴 가득히 회색을 띄고 말씀을 전하고 있었다. “저는 무디 선생의 도움을 받으려고 이 집회에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밤 저는 예수님을 친히 인격적으로 만나는 체험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시선을 받는 순간 제 마음속에 떠오른 확신이 있었습니다. 무엇인지 아십니까? 제 사는 동안 예수 외에는 어느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을 것 같은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 간증을 듣는 순간 무엇인가 자신의 심령을 강타하였다고 심슨은 회상했다. “예수만이 우리의 모든 것이다. 예수께만 의지하면 된다.” 심슨은 더 이상 무디의 말씀이 있기까지 기다리지 않고 주저 없이 루이빌 향 기차에 몸을 실었고, 돌아가는 즉시

교회 사무실로 직행했다. “저는 주님 발 앞에 무릎 꿇고 주님이 오실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은 제 입술에 은혜를 베푸셔서 이렇게 노래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예수를 보았네, 내 마음에 다른 어떤 것도 없네;
예수를 보았네, 내 모든 필요를 채워주셨네;
예수를 보았네, 내 심령이 만족하다네,
예수만으로 만족하다네.”

폭풍전야의 루이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종에게 두 가지 큰 은혜를 베푸신 데는 목적이 있었다. 내주하시는 그리스도의 새로운 빛과 성령세례를 허락하신 사건은 즉시 루이빌 전체에 엄청난 충격으로 역사하였다. 심슨으로 하여금 과거 사역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했던 것이다. 그리스도의 새 빛은 심슨의 골수 안에 불길처럼 타올라 모두가 잠든 밤 기도하게 만들었다. 바로 남북전쟁의 상처로 찢어지고 갈라진 루이빌에 하나님의 위대한 부흥의 역사를 가져오도록 몸부림쳐 기도하게 했던 것이다.

심슨의 역할은 기도로 끝나지 않았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중보하게 하시고 중보자를 사용하시는 분이시다. 루이빌 소재의 많은 교회들을 순회하며 말씀을 전할 기회가 심슨에게 주어졌다. 캐나다 인이라는 배경이 교회들로 하여금 거리낌없이 강단을 제공하도록 만들었던 것이다. 심슨의 메시지는 시종일관하였다. “성령의 임하심을 위해 기도하라.” 무엇보다 먼저 목사들이 화해하고 교인들에게 성령의 부흥의 불길이 임하여야 루이빌의 불신자들에게 복음의 문이 열린다는 사실을 전하였다.

심슨의 활동은 강단을 순회하며 말씀을 전하는데 그치지 않았다. 심슨 목사는 루이빌 지역의 동료목사님들을 한 자리에 모이게 하여 함께 기도하고 부흥집회의 가능성에 대해 논의했다. 당시 유명했던 부흥사 헛틀(1840-1901)과 찬양 사역자 필립 블리스(1838-76)의 이름을 거명한 것도 아마 심슨이었을 것이다. 이 일에 심슨은 전도 팀과 지역교회 사이에서 다리역할을 감당하였다.

다음 단계는 부흥을 위한 연합집회를 조직하는 것이었다. 1875년 1월의 첫 주간 첫 번째 연합집회가 있었다. 아마도 이 집회의 배후에는 복음주의연합

(Evangelical Alliance)의 호소가 주효했는지도 모른다. 복음주의연합은 런던에 본부를 둔 단체로 이미 여러 해 동안 전 세계기독교인들이 새해 첫 주를 기도회에 바치도록 권해 왔다. 루이빌 시 목사들은 당시 가장 큰 성전을 가진 월넛스트리트 침례교회를 연합기도집회의 장소로 선정함으로 이 집회에 대한 저들의 믿음의 정도를 보여주었다. 정작 집회를 시작하니 아침, 저녁집회마다 성도들의 숫자가 넘쳐서 주일 오후에 대규모집회를 추가해야 했다.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자주 체험하는 일이다. 성령님은 이미 성도들의 한사람 한사람의 심령 속에 역사하셔서 화해와 부흥을 준비시키셨던 것을 발견한다. 성도들은 사실은 지도자들이 깨어 일어나 그들에게 길을 제시해주시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성공적인 첫 주 집회는 1 월 마지막 주간 두 번째 연합기도회로 이어졌고 성도들의 적극적인 호응 때문에 급기야는 무기한 연장되어 1 년이란 기간이 경과하고서야 집회가 끝났다.

큰 기대와 큰 역사

막상 부흥집회가 개최될 예정이던 1875년 2월 7일 주일저녁이 오기도 전에 이미 부흥은 각 교회들을 휩쓸었고 루이빌 전 도시가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에 대한 기대로 들떠있었다. 마침 헛틀과 블리스 두 분이 집회시간에 대어 도착하지 못함으로 인해 루이빌 지역의 목사들이 번갈아 공용 도서관의 강당 겸 전시회장에 가득 찬 군중들을 향해 말씀을 전하였고 심슨 목사도 순서를 맡아야 했다. 집회기간 내내 문제는 이 많은 군중을 수용할 공간을 확보하는 일이었다. 시내의 공공시설이란 시설은 다 세를 내어도 부족한 형편이었다. 쏟아지는 폭우도, 진눈깨비도, 폭설도 성도들의 열정을 막지 못했다. 부흥집회 때문에 손해를 본 사업도 있었다. 특히 술집이나 오락시설은 손님격감으로 고전했다. 사업가들은 헛틀을 사업장으로 초빙해서 의견을 물었다. 루이빌로 오는 기차마다 외부에서 루이빌에서 일어나는 사건을 소문을 듣고 보러오는 방문객들과 성령의 체험을 갈구하는 성도들로 붐비었다.

루이빌 지역신문에 부흥집회에 대해 난 기사만 보아도 얼마나 큰 역사가 일어났는지 알 수 있다. “어마어마한 숫자의 회중들의 모임... 수백 명이 자리가 없어 집회에 선 채로 참석하다. 전례를 찾을 수 없는 출석인원.... 빈 구석 하나 없이 사용된 건물...” 다른 한 신문은 이렇게 보도했다. “복음의 도도한 물길이 저항할 수 없는 엄청난 힘으로 터져 나와 수다한 지역으로 확산될 것이다.”

부흥집회 셋째 주가 끝날 즈음, 주강사인 헛틀이 부친의 임종 때문에 시카고로 떠나게 되어 여러 목사님들이 헛틀을 대신하여 집회를 인도하게 되었다. 주일저녁 심슨 목사는 성전을 메운 성도들에게 누가복음 14 장 17 절 “오라 모든 것이 준비되었느니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였다. 월요일 신문기사는 이렇게 보도했다. “심슨의 설교는 지금까지 집회기간 중 어느 설교보다 빼어난 설교였다. 이 설교는 놀라운 반응을 일으켰다. 3-4 백 명의 불신자가 말씀을 듣고 자리에서 일어나 교인들에게 기도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기사는 이렇게 결론지었다. “이러한 놀라운 반응을 일으킨 설교는 루이빌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이러한 놀라운 청중들의 반응은 심슨에게 아마도 참신한 충격이었을 것이다. 왜냐 하면, 심슨은 아직까지도 자신의 사역범위를 자신이 담임한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 전하는데 국한시켜왔기 때문이었다. 심슨의 설교 후 다음주일인 3월 7일주일에는 복음이 전해지는 곳이라면 교회이건 공공시설을 막론하고 가득 찼다. 아침에는 목사님들은 각자의 교회에서 성전을 가득 메운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하였다. 오후에는 흑인형제들을 위한 집회가 글로브스링크 (Globe's Rink) 실내 스케이트장에서 열렸고, 백인형제들 중 노무자들을 대상으로 한 집회가 리이더크란츠 홀 (Liederkrantz Hall)에서 열렸다. 공공도서관의 강당에서 열린 젊은이 전용 집회에는 젊은이들에게만 표를 발급했음에도 불구하고 연령층을 불문한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마콜리 극장의 집회는 모든 사람에게 개방되었다.

헛틀-블라스 두 부흥사의 집회는 3월 12일 금요일 집회로 막을 내렸다. 금요일 집회는 기도회로 온종일 계속되었다. 한 신문은 이렇게 보도했다. “기도회에 만 명이 참석하다.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종교적 열정분출.” 기도회는 두 번의 대형집회로 절정을 이루었다. 저녁 6시 반 집회는 원래 새 신자만 참석하게 되어있었으나 정작 7시 반 두 번째 집회를 시작하려 문을 여니 “수천 명의 군중이 앞 다투어 밀려들어와 순식간에 자리를 메워버렸다. 3천명의 군중이 혼잡을 이루고 밀려들어왔고 또 3천 명은 들어갈 수도 없었다.”

헛틀의 설교직후 기립한 군중들은 “주 예수 이름 높이어”를 합창하였다. 블리스의 권면에 따라 함께 손잡은 목사님들의 줄이 강단 위를 가득히 메웠다. 바야흐로 루이빌의 성도들이 다시금 십자가아래 하나로 연합하는 놀라운 화해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이다.

남은 불꽃

부흥집회는 끝났다. 그러나 일단 발동이 걸린 심슨은 이제 막 시작된 부흥운동에 급작스러운 제동을 걸려 하지 않았다. 부흥집회의 마지막 날 저녁 심슨은 주일 저녁 대중집회는 계속될 것임을 선언했다. 이를 위해 체스넛스트리트 장로교회는 이미 공공 도서관 강당을 빌려 놓았던 것이다. 심슨 목사는 다른 교회도 심슨의 제안에 부응하여 함께 집회를 하기를 원했다. 그러나 다른 교회들은 각자대로 부흥을 이어가기로 결정하였다. 루이빌 지방신문은 심슨 목사가 일반대중을 대상으로 한 집회를 계속하기로 한 것을 보도하면서 심슨의 진의가 “복음을 듣고자 하는 소원은 있으나 정규교회에 출석치 못하는 사람들”을 감안한 것이라고 밝혀 말했다. 바야흐로 심슨의 마음속에 품었던 소원, 즉 정규교회에서 외면 받았지만 하나님에게서는 외면 받지 않은 무교회 대중들에 대한 관심이 이제 표출하기 시작했던 것이다. 비록 그 길이 아무도 따르지 않는 외로운 길일지라도 말이다.

신문은 후일 심슨의 가장 큰 강점으로 판명되는 일면에 대해 보도하였다. “무엇보다 좋았던 것은 심슨 목사가 인도하는 집회의 목적이 교단이나 파당적이 아니고 복음적이고 범 교회적일 뿐 아니라 모든 복음주의 목사와 교회들이 다 환영받는 집회였다는 사실이었다.” 헛틀-블리스 부흥집회직후 일어난 사건으로 당시로는 사소한 일이었지만 심슨의 사역에 전환점이 되는 사건이 있었다. 켄터키주 렉싱턴 시의 목사님들이 심슨 목사에게 일련의 부흥집회를 인도해달라고 요청했던 것이다. 수년 전에도 동료 장로교회 목사님이 심슨 목사에게 비슷한 요청을 한 적이 있었지만 심슨 목사는 단호히 거부했던 적이 있었다. “저는 부흥회는 인도할 수 없습니다. 왜냐 하면 저는 부흥사가 아니고 목회자이기 때문입니다.”

루이빌 부흥집회의 불꽃이 아직도 남아있는 시점이라 그러했으리라. 2 개월의 연속집회로 지칠 대로 지친 육신임에도 불구하고 심슨은 렉싱턴 시 목사님들의 초청에 즉시 응하였을 뿐 아니라, 자신의 교회의 평일 야간집회까지 취소하면서까지 이 집회를 인도했다. 이 일을 계기로 심슨은 목회자로서뿐 아니라 부흥사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다.